

'96 동남아시아 전자공업의 동향 조사 보고서(I)

조사부

목 차

I. 조사의 개요

II. 각국별 동향

- | | |
|-------|---------|
| ① 한국 | ⑥ 미얀마 |
| ② 대만 | ⑦ 필리핀 |
| ③ 홍콩 | ⑧ 말레이시아 |
| ④ 베트남 | ⑨ 싱가포르 |
| ⑤ 타이 | ⑩ 인도네시아 |

I. 조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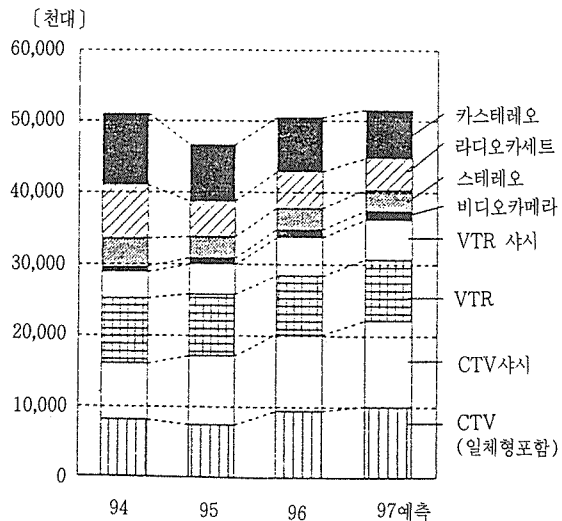
1. 각국별 동향의 개요

(1)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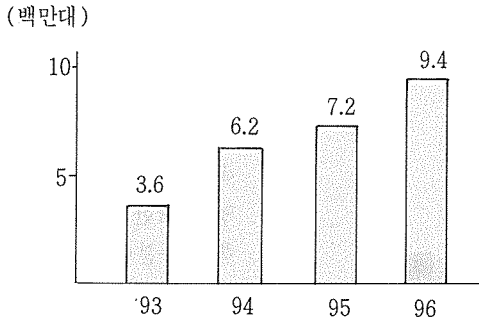
2자리 상승의 임금, 제조업에서의 노동력부족, 나아가 금년에 들어 원고에 의한 수출정체 등으로

본고는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J) 부품운영위원회에서 지난 6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국, 대만, 홍콩 등 10지역에 동남아시아 조사단을 파견하여 각국의 기기업체 정부관계기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한 보고서를 본회에서 번역 게재한 것임.

한국 AV기기의 생산추이



대만 PC완성품의 생산대수



경제에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코스트 경쟁력이 없어진 AV기기를 중심으로 해외생산 이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재계 공동보조라고 생각되는 하이테크 기술도입의 추진과 외국기업과의 기술 제휴 및 자본참여 등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2) 대만

정치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지만, 경제면에서의 보완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전자산업의 구조변화에 의해 정보기기 관련제품의 생산이 '95년에는 200억불을 넘어섰는데, PC의 생산은 완성품과 마더보드 모두 섬내에서의 생산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대륙에서의 생산이 앞으로도 증강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부품메이커의 성장은 현재 해 일본계 부품메이커는 어쩔 수 없이 저가제품과의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경기동향은 견조하지만, 전자기기 생산에서는 중국화남지역을 포함해 조정국면에 들어가 있다.

주요생산기종인 오디오·전화기 등의 저가격화는 로칼세트메이커의 도산과 출혈판매 등 서바이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 전자부품에 있어서는 로칼부품과의 경합이 현재화(顯在化)하고 있다.

홍콩 - 주요분야별수주예측

(전년동기대비 단위: %)

시점 분야	4~6월		7~9월		10~12월		1~3월	
	95년	96년	95년	96년	95년	96년	95년	96년
C - TV	95	103	93	108	97	103	101	97
오 디 어	96	78	100	83	97	93	93	95
전 화	92	88	97	90	98	92	97	92
P C	112	95	119	95	118	99	119	100
가 전	101	110	110	110	107	109	104	108
전 체	105	100	109	102	107	103	108	101

(각년 6월시점의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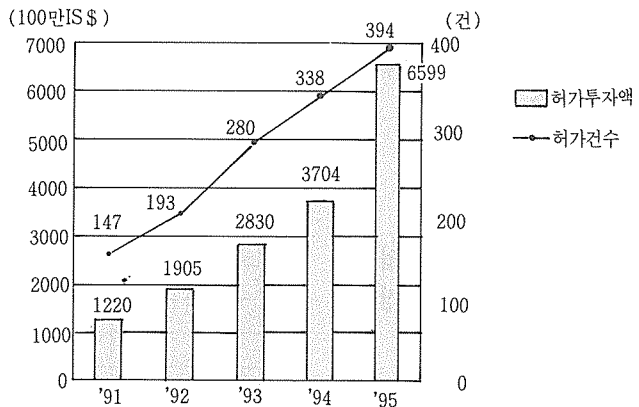
(3) 홍콩

'97년 중국에의 반환을 앞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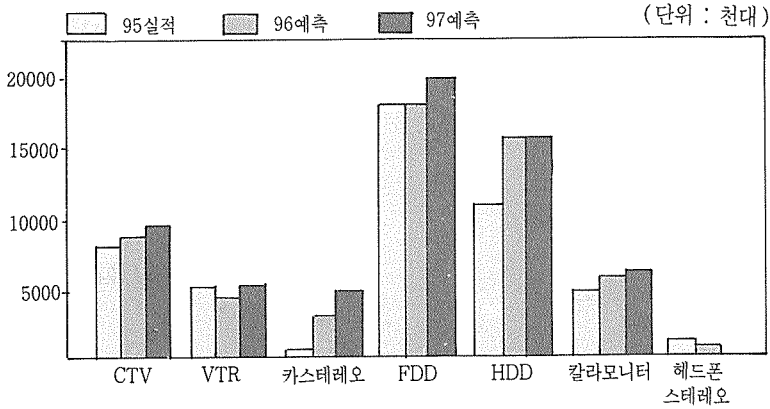
(4) 베트남

개혁, 개방의 도이모이(쇄신)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이



태국 주요전자기기의 생산동향



을 내건 10년중 최근 2~3년 전부터 8%의 성장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GDP를 '90년의 8~10배로 올려 공업입국을 이룬다는 목표를 내걸고 그 일환으로써 적극적인 외자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산당 지배체제하에서의 복잡한 행정기구, 미정비된 사회기반과 법규칙, 시장경제화에 따른 왜곡 등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장래에 있어서의 시장의 잠재성과 풍부하고 질높은 노동력을 예상하여 외자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의 진출이 현저하며, 일본계 기업도 점차 진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5) 태국

일, 한, 미, EU의 자동차산업진출이 눈부시며, 정부는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GDP는 8%대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높은 경제성장기에

상된다. 한편, 자동차산업의 진출에 의해 방콕주변에서는 노동력부족과 임금상승이 심각해 주변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기업도 늘고 있다.

가정용기기중 오디오는 중국생산이 주류가 되어 감소경향에 있으나, 세탁기, 냉장고와 PC주변기기 등은 순조로운 생산이 예상되고 있으며, 태국 국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계 스테레오메이커가 새로이 진출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6) 미얀마

CDP의 55%, 취업인구의 65%를 농업인구가 점하고 있는 미얀마는 군사정권하에서 개방정책이 취해지고는 있으나, 26년간 계속된 폐쇄사회의 영향으로 경제운영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가가 부족해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구미의 자본이 석유관련 산업에, 아시아의 자본이 호텔, 관광업, 수산업, 제조업(목공, 건축자재)에 투자되고 있으나, 전자쪽은 한국의 대우가 칼라TV의 생산을 행하고 있는 정도이다.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고 치안도 좋은 편이나 투자에 관한 최대의 과제는 2중 환율과 인프라 정비의 뒷늦음을 시정하는 것으로 주요원조국과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원조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7)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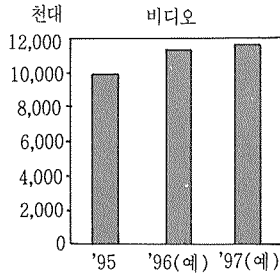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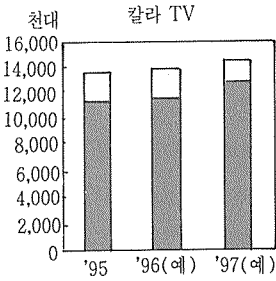
종래의 과제였던 정치불안 문제나 전력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되고

미얀마 외국타자의 업종별·인가상황(누적)

95년 5월 현재 (단위 : 백만US달러)

업종	건수	투자액	(%)
제조가공업	50	175.3	6.7%
관광업	30	570.4	21.9%
석유개발	23	1,420.6	54.6%
광업	13	182.2	7.0%
어업	14	246.3	9.5%
운수	3	2.3	0.1%
농업	1	2.7	0.1%
합계	134	2,599.8	100.0%

말레이시아



생산수단도 노동집약형에서 설비집약형으로, 생산기종도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트의 코스트 절감정책의 일환으로 대만계나 한국계의 부품을 채용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9) 싱가포르

경제성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니 버블」 현상이 우려된다.

있고, 유치장소도 이제까지 마닐라 수도권, 카비테 바탕, 세브지역을 벗어나 마닐라 주변지역(마리키라, 브라강, 바기오 등)으로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금후 마닐라 주변지역의 발전이 예상되는데, ASEAN지역내에 있다고 하는 이점(대만, 홍콩, 일본과 가까움)과 영어권이라는 점, 그리고 노동력의 높은 질을 내걸고 '외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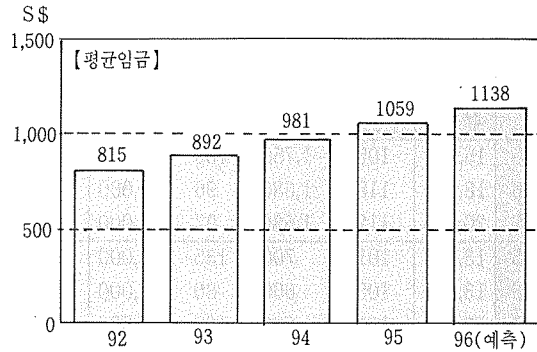
유럽 등으로의 재이전도 행해지고 있다.

기기메이커는 필리핀 국내수요용의 생산이 중심으로 부품의 현지조달은 아직 작지만, 일본의 대형 HDD 메이커 수개사가 HDD 관련부품을 포함한 대대적인 전개를 계획하고 있어 필리핀이 일대 생산기지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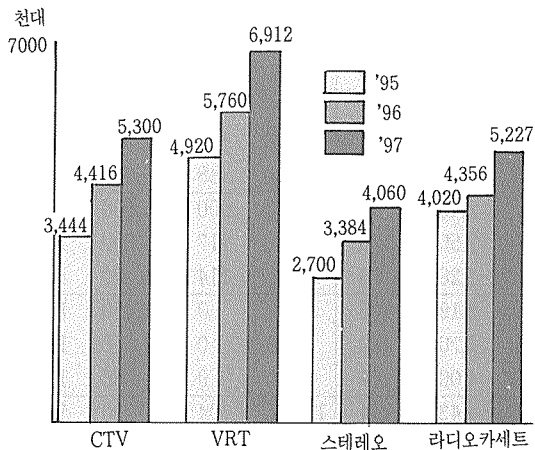
(8) 말레이시아

ASEAN에 있어서 세트생산의 중심적인 위치에는 있으나, 노동력부족과 코스트 경쟁력의 상실로 일부 Low-End 제품은 인접국가나 중국으로의 재이전이 행해지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GSP졸업과 보조를 맞추듯이 NAFTA권, 동

싱가포르 노동력의 평균임금



인도네시아 주요기기생산현황 (AV)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는 영업 거점으로서의 우위성은 있지만, 전자공업의 생산기지로서의 구조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즉 AV를 중심으로한 조립가공업 및 저·중 부가가치 전자제품의 타국에의 생산 재이전이 가속화되고, 정부의 하이테크 산업에의 우위정책과 맞물려 정보관련기기, 반도체 관련기기, 나아가 고부가가치 전자부품 등의 생산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IPO나 R&P에의 우대정

책에 의해 OHQ(오퍼레이셔널 헤드쿼터)기능의 확충이 활발하다.

(10) 인도네시아

ASEAN의 차기 발전기지를 목표로, 주변국가의 활발한 외자도입과 기업유치에 자극받아 외자규제완화정책을 발령하고 외자 100%의 진출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일본 대기업의 후원에 의한 대규모 공업단지가 자카르타 교외에

2개나 있으며, 일본계 기업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거점으로 부터의 투자가 늘고 있어 활황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계 기기메이커가 국책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최근의 인도네시아 국민차 계획으로 상징되듯이 한국과의 연계가 깊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포팅 인터스트리의 층은 아직 얇다고 생각

각국의 주요기기생산현황

(단위 : 천대, %)

		한 국		대 만		홍 콩		태 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수 량	전년비	수 량	전년비	수 량	전년비	수 량	전년비	수 량	전년비	수 량	전년비
CVT	'95	15,875	105	1,750	106	7,000	103	7,900	105	11,392	144	5,500	92
	'96	18,300	115	1,680	96	7,000	100	8,700	110	11,906	105	5,700	104
	'97	20,500	112	1,630	97	7,000	100	9,220	106	12,510	105	5,400	95
VTR	'95	13,035	101	700	135	5,000	167	5,000	83	9,718	120	3,400	103
	'96	13,860	105	600	86	7,000	140	3,500	70	11,239	116	3,000	88
	'97	13,930	101	600	100	7,500	107	5,000	143	11,640	104	2,900	97
라 디 오 카 세 트	'95	2,620	52	200	50	42,000	114	0	0	11,692	133	2,700	60
	'96	2,300	88	100	50	44,000	105	0	0	7,042	60	360	13
	'97	2,070	90	100	100	45,600	104	0	0	5,620	80	180	50
헤 드 폰 스테레오	'95	1,350	112	4,000	89	30,000	43	800	40	15,279	109	3,500	83
	'96	1,500	111	4,300	108	25,000	83	360	45	15,442	101	1,000	29
	'97	1,500	100	4,500	105	30,000	120	0	0	15,700	102	500	50
코 드 레 스폰	'95	3,567	106	1,990	83	15,400	103	660	100	7,620	167	600	49
	'96	4,000	112	2,400	121	17,000	110	660	100	7,518	99	700	117
	'97	4,430	111	2,100	88	19,000	112	660	100	6,420	85	800	114
FDD	'95	2,497	103	3,000	500	4,600	230	16,600	85	25,388	122	0	0
	'96	2,500	100	3,500	117	4,800	104	16,800	101	19,540	77	0	0
	'97	2,200	88	4,000	114	4,800	100	19,000	113	20,000	102	0	0
HDD	'95	2,198	125	0	0	1,450	101	10,100	68	11,800	179	43,000	130
	'96	2,700	123	0	0	1,550	107	14,700	146	12,800	108	52,000	121
	'97	4,000	148	0	0	1,650	106	15,000	102	15,800	123	53,800	103
칼 라 모 니 터	'95	14,430	124	13,500	94	720	113	4,660	132	7,061	220	1,250	63
	'96	16,600	115	13,000	96	1,000	139	5,500	118	6,970	99	1,150	92
	'97	18,500	111	13,000	100	1,500	150	5,570	104	8,390	120	1,250	109

주요분야별수주동향

(전년동기비, %)

분야	'96년 4~6월					'96년 7~9월					'96년 10~12월					'97년 1~3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CTV	90	93	103	103	105	101	93	108	103	103	107	98	103	103	105	107	98	97	101	105
VTR	90	63	120	91	110	96	85	120	95	115	106	100	118	99	110	104	100	111	99	105
오디오	77	90	78	82	100	97	95	83	91	90	95	88	93	94	95	93	91	95	92	95
전화	87	78	88	82	100	96	86	90	82	90	101	97	92	85	90	103	108	92	86	90
P C	95	85	95	89	80	100	105	95	95	90	112	154	99	100	100	112	142	100	105	100
사무실	92	100	105	99	100	97	115	105	101	100	105	120	105	103	100	105	95	105	103	100
가전	87	102	110	98	110	96	100	110	100	110	105	107	109	100	110	113	107	108	100	110
전체	88	86	100	88	101	98	95	102	95	100	105	106	103	100	101	108	104	101	100	101

된다.

2. 기기 메이커의 동향

(1) 주요기기의 생산동향

기기메이커는 이제까지 생산확대를 계속해 왔으나, 작년 여름 이후 미국에서의 교체수요의 부진, EU시장의 침체 등에 의한 유통재고 과잉의 현재화에 의해 생산감소가 가속되는 조정국면을 맞고 있으며 X'mas수요, 아시아에서의 일정월 수요 등도 기대에 반해 생산조정은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었다.

이제 재고 조정도 끝나 증산으로 전환하는 메이커도 나오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회복세는 느리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생산거점의 재편성과 재배치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그 요인은 ① 저가격화 경쟁의 격화 ② 신수요지에서의 생산 ③ NAFTA, EU 등 경제

블럭권에의 회귀 등을 들 수 있다.

(2) IPO와 R&D기능

또한 최근의 엔화약세 경향으로 일부 기종에 대해 생산을 일시적으로 일본 국내에 재이전하는 메이커도 나오고 있다.

IPO는 종래 홍콩 및 싱가포르의 고극체제였으나, 말레이시아에 기능이전을 하고 있는 메이커도 증가하고 있어, 지역토칼 부품메

주요국노동임금

(남녀 평균)

국명	단위	'94	'95	'96
한국	1,000W	932	1,065	1,200
	대전년	(110)%	(114)%	(113)%
	대엔	0.1266	0.1205	0.1351
대만	NT \$	31,390	32,940	33,930
	대전년	(120)%	(105)%	(103)%
	대엔	3.8551	3.5323	3.8565
홍콩	HK \$	6,635	7,411	8,122
	대전년	(112)%	(112)%	(110)%
	대엔	13.50	11.10	13.85
싱가폴	S \$	981	1,059	1,138
	대전년	(110)%	(108)%	(107)%
	대엔	66.89	65.99	76.00
말레이시아	RM	1,085	1,194	1,313
	대전년	(110)%	(110)%	(110)%
	대엔	38.89	37.29	41.49
태국	BAHT	5,900	6,500	7,150
	대전년	(107)%	(110)%	(110)%
	대엔	4.04	3.84	4.29

이커의 육성과 현지부품조달을 촉진하고 있다.

R & D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단순한 부품교체 (Replacement)의 수준에서 IPO와 합체에 의한 부품인정과 토크 부품육성 및 채용에 의해 ASEAN사양의 설계 등 본격적인 R&D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계 부품메이커로써는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3. 부품메이커의 동향

(1) 수주동향

아래의 표는 주요지역별, 분야

별의 수주동향으로, 작년 6월시점에서의 수주수준은 全 1/4~4/4분기 모두 전년동기대비 2자리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기기메이커의 생산조정과 연동해 전체적으로는 수준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금년 하반기부터 '97년 1/4분기 까지)에는 약간 회복의 전망도 있지만, 대단히 완만한 회복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분야별로는 오디오와 전화기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로칼부품의 대두

한국, 대만, 화교계 등의 로칼

부품의 대두가 현재화하고 있다. 기술력, 품질, 신뢰성 등의 면에서 아직 일본계가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Low-End분야에서는 본격적인 경쟁기에 들어가 있다.

4. 전자산업에 있어서의 노동임금

각국에 있어서의 다이렉트 워커(직접 노동자)의 임금사정은 어느 국가에 있어서나 2자리 내지 2자리에 가까운 상승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개발국 일수록 상승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전자시장 2000년 1조2천억달러 규모

오는 2000년께 세계 전자제품 시장은 1조2,000억달러 규모에 이르고 주로 아·태지역 업체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최근 미 시장조사회사인 데이터퀘스트의 자료를 인용, PC·통신/멀티미디어 기기·반도체 등을 포함한 세계 전자산업 규모는 지난해 7,500억달러에서 오는 2000년에는 1조2,000억달러 정도되고 2010년에는 2조2,000억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한국, 싱가포르 등 일본을 제외한 아·태지역 전자업체들이 성장세를 거듭해 2000년에는 세계시장의 30%를 넘게 차지,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는 반면 북미업체의 비중

은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유럽과 일본이 각각 20%를 약간 넘을 것이라고 데이터퀘스트는 내다봤다.

이같은 시장구도는 주로 반도체나 그밖의 핵심부품을 모두 채용함으로써 전자부품의 핵심으로 상징되는 PC산업에 의해 결정되는데 올해 세계 PC시장이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7,000만대가 약간 넘을 전망이고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18% 정도의 성장율을 기록. 오는 99년에는 약 1억2,000만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이라고 데이터퀘스트의 한 분석가는 전했다.

이와함께 이 회사는 무선통신기와 반도체시장도 급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

우 화상회의나 양방향 TV, 세트톱박스 등 멀티미디어기기에 대한 채용이 본격화되는 데 힘입어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메모리가격의 하락 등 침체를 보였던 세계 반도체시장은 다시 성장곡선을 그리며 2000년 시장규모가 3,100억달러 정도되고 2005년에는 7,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반도체 업체별로는 현재 인텔이 계속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일본 NEC와 히타치, 도시바 등이 추격하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현대전자, LG반도체의 등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 상위의 10위 안에 들어 있다고 분석했다.